중기 잡는 세금 아닌 세금

전력·폐기물… 부담금 '부담스럽네'

중소기업 3곳 中 1곳 애로해소
경영 부담·연체 가산금 등 문제
"부담금 요율 조정 등 개선을"

'중소기업들, 부담금 부담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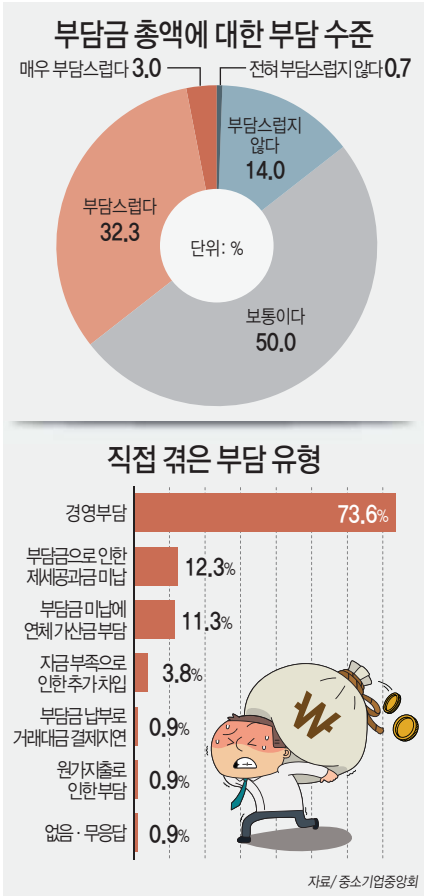
중소기업 3곳 중 1곳 가량은 전력·환경개선·폐기물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각종 '부담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정부 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50%, '부담스럽지 않다'는 14.7%였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경영 부담'이 73.6%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 납부에 따른 다른 제세공과금 미납'(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11.7%는 부담금 때문에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포기한 내용을 보면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높은 부담금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으로 응답 기업의 63%가 전력부담금을, 14.0%가 폐기물 부담금, 8.3%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각각 꼽았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역시 전력부담금을 꼽은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폐기물 부담금(12.7%), 물 이용 부담금(8.0%) 순이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선 25%가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답도 19.7%, '사용 내용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19.0%였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 내용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등을 들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은 정비하고, 사용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中가전연구원 손잡고 中 추가 공략

코웨이가 중국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코웨이는 중국가전연구원(CHEARI)과 전략적 업무 제휴 및 환경가전제품 기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력 및 제품 품질 향상으로 중국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중국가전연구원은 1965년 설립돼 중국 가전 제품의 국가 표준 인증인 'GB' 시험 검사 및 인증과 사후 검사를 진행하며 국가표준 시험법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B인증은 중국 가전제품이 획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 중 하나다.

양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환경 가전의 중국 국가 표준 인증인 'GB' 획득에 신속히 대응하며 기술 교육 지원 등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활발히 해 제품 품질 향상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 강상현 연구부문장(왼쪽)이 노건국 중국가전연구원 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김승호 기자

카카오벤처스 올해 43개 스타트업에 337억 투자

초기투자 전문 벤처캐피털 카카오벤처스가 2018년 한 해 동안의 투자 활동이 담긴 인포그래픽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카카오벤처스는 43개 스타트업에 337억원 규모의 신규 및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시드 라운드와 시리즈 A 라운드의 초기 투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카카오벤처스의 포트폴리오는 140개 이상, 누적 투자금액은 13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카카오벤처스는 증강현실(AR),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투자를 넓혔다. AR 영역에는 레티널과 스페이셜에, 블록체인 영역에는 코드박스, 테라 등에 투자했다. 리메세와 마이듀티와 같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팀에도 신규 투자했다.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올해는 카카오벤처스가 스타트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새롭고 유의미한 도전을 쉬지 않았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카카오벤처스는 게임, 블록체인 영역 등을 시작으로 밸류업파트너팀을 신설했다. 그중 포트폴리오이자 상장사인 모바일게임사 넵튠의 정욱 대표가 게임체인저로 활동 중이다. 또한 카카오벤처스는 루닛, 쥬빌리웍스 등 기존 포트폴리오로의 3회 이상 시리즈 투자도 활발히 진행했다.

외형적인 변화도 있었다. 지난 3월 케이큐브벤처스에서 카카오벤처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더불어 5~6년 이상 카카오벤처스에서 비전을 함께해 온 정신아 당시 상무를 대표로, 김기준 당시 상무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카카오벤처스는 스타트업과 함께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로서, 적극적으로 초기 팀의 핵심역량을 끌어주고 나아가 그들을 장기적인 빅 위너로 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4월 출범한 카카오벤처스는 현재 총 2046억 원 규모의 펀드조합 6개를 운용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벤처기업人이 뽑은 올해 최고의 국회의원은?

벤처기업협회
생태계 기여 국회의원·정부부처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병국 의원이 벤처기업인들이 뽑은 '올해의 최고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의 벤처정책(정부부처 부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가 각각 선정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우수 벤처정책을 추진한 정부부처·유관기관을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김병관 의원과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고 국회의원'에 뽑혔다.

김병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면제 가능한 근거규정과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을 도왔다.

또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희경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와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법 및 융복합 헬스케어기기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암호통화의 정의규정 마련 및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 활성화와 발전기반 조성 등에 도움을 줬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6월에 활동을 끝낸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벤처협회가 제시한 '혁신생태계발전 5개년 계획(안)'의 아젠다를 위원회 활동보고서 내 대정부 권고안에 포함시켜 과제 해결에 힘을 썼다는 평가다.

벤처인이 뽑은 '최고 정부부처'에 오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코스닥의 상장기준 완화 및 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했다.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재설계했으며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지원 요건 완화방안, 규제 샌드박스 입법전략 및 핵심규제 혁신(안) 등을 마련했다.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는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사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에 5조원을 투자하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촉진법을 개정해 규제샌드박스도 본격 추진했다.

올해 신설된 벤처인이 뽑은 최고 벤처정책(유관기관 부문)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과 코스닥시장위원회 김재준 전 위원장이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한화큐셀, 8만3천가구에 태양광 모듈 공급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큐셀부문(한화큐셀)은 현재까지 국내 약 8만3000가구(약 240MW·공동주택 포함)에 주택용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내년도 누적 10만가구 이상의 국내 주택에 태양광 시스템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화큐셀은 향후 국내 에너지 프로컨슈머 시장을 적극 개척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국내에서 다양한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에 주택용 태양광 토털 솔루션(태양광 모듈·부자재·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아파트 미니 태양광 사업에도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한화큐셀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소비자들이 높은 비용 부담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안정성을 갖춘 한화큐셀의 태양광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이다.

서울 망우동 중랑숲리가 아파트 전경. /한화큐셀

태양광 대여사업 소비자는 리스 상품과 유사하게 한화큐셀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7년동안 대여 받고 매월 대여료(약 4만원)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소비자들은 낮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